

<<내신 기출, 독서 비상-상편>>

◆차례◆

1. 나를 기르는 독서

- (1)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 1쪽 (40문제)
(2) 우리는 행복한가 ----- 19쪽 (59문제)

2. 소통하는 독서

- (1) 미세 먼지의 실체 ----- 45쪽 (51문제)
(2)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 68쪽 (45문제)

3.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

- (1)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 92쪽 (43문제)
(2)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 112쪽 (29문제)
(3) 미안합니다 ----- 128쪽 (11문제)

4. 가치를 내면화하는 독서

- (1) 나는 누구인가 ----- 137쪽 (16문제)
(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 146쪽 (5문제)
(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 150쪽 (2문제)

5. 세상과 만나는 독서

- (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 153쪽 (3문제)
(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 156쪽 (4문제)

▶전체 정답 -----160쪽

▶해설 -----162쪽

(버전: 2020.08.14.) 이전 버전의 오류는 수정됨.

문제를 풀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오류 정정을 확인!

문의 및 오류 신고: pt005pt (카톡 ID)

1-(1)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제재 개관

갈래	(수필)	성격	자전적, 체험적, 교훈적
제재	독서		
주제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로 인한 내면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을 서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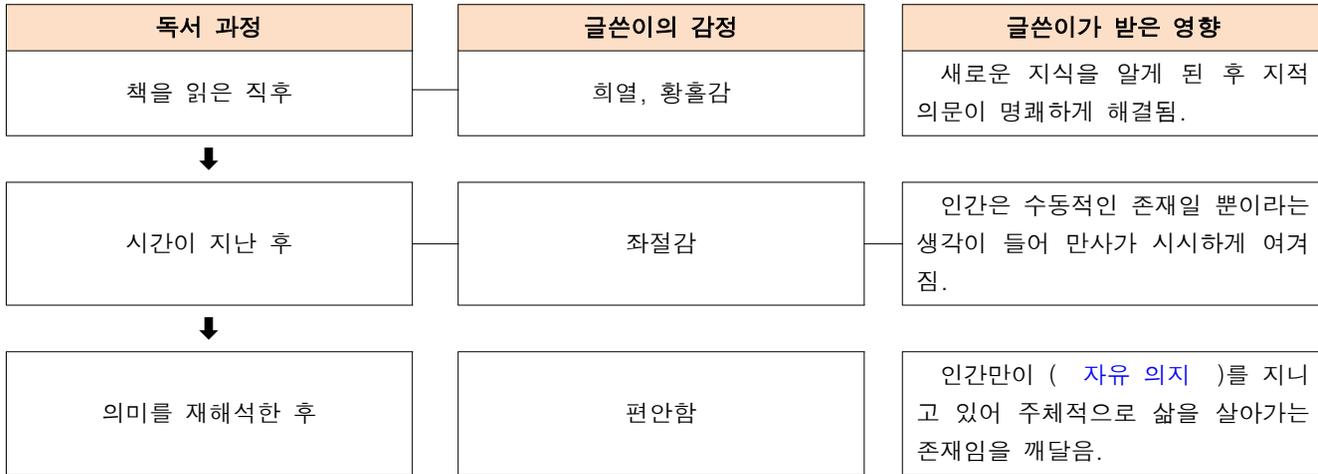
제재 구조도

처음	『사회 생물학』 과의 만남
중간 1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지적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을 때 느낀 희열
중간 2	시간이 지난 후 느낀 좌절감과 『이기적 유전자』를 재해석하고 난 후의 깨달음
끝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과 노력하는 삶에 대한 다짐



핵심 강의

1.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며 받은 영향



2. 『이기적 유전자』를 통한 글쓴이의 깨달음

학문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며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야 함.
삶	주어진 삶의 길을 최선을 다해 힘껏 노력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미 「사회 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나는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 주는 듯했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 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나)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회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필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물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렸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글을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B)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 최재천,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개성고등학교 (부산)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황홀감→좌절감→경외감
- ② 황홀감→시시함→좌절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새로워졌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의 디엔에이(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 없이 생존해 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 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속의 디엔에이(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디엔에이(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라 할 수 있다.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같았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회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 물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야릇한 기분이었다.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았던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했다. 재수 시절,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다니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렸으며,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다. 하지만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그런데 그 황홀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시시하게 여겨졌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것,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하지만 다행히 방향이 길지는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제 아닐 거야.’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를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닦치는 대로 읽었다.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화가 열리면 파지지 않고 참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주제들이었다.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한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 주었으며, 동시에 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다.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 의지의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유전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인간은 자유 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큼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도 얼마 동안은 그랬다. 하지만 그 책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서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바심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

각해 보라.”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 최재천, '과학자의 서재'

인향고등학교 (인천)

6. 다음은 윗글의 필자가 윗글을 작성하기 전에 메모한 것이라고 할 때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제재] 독서

[주제] 독서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

[주요 내용]

- ① 책을 통해 삶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찾은 황홀감
- ② 유학 생활의 실망감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태도
- ③ 좌절을 느낀 경위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
- ④ 자유 의지를 통해 삶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깨달음
- ⑤ 책을 통한 깨달음과 삶에 대한 긍정

인향고등학교 (인천)

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에게 인생사 일장춘몽이라는 말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② ㉠은 ㉡의 삶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도록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 ③ ㉠은 ㉡의 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 ④ ㉠은 ㉡의 고민에 대해 자신이 해 보았던 경험 중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은 ㉡의 고민 해결에 대한 상대측 계획에 대해 실현 불가능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8. ㉠~㉡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 :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딪히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 ② ㉡ : 자동차 뒷바퀴가 진구렁에 빠졌다가 겨우 헤치고 나왔다
- ③ ㉢ : 사회과학에 파고든 친구는 연구자로 성공했다.
- ④ ㉣ : 그는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통장에 기록으로 정리했다.
- ⑤ ㉤ : 관중의 함성이 경기장을 흔들어 놓았다.

인향고등학교 (인천)

9. ㉢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작성하시오.

<조건>

- ‘인간의 삶은’을 주어로 작성할 것.



제재 개관

㉠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해설적
제재	행복		
주제	행복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에 대한 '(밀)'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며 내용을 전개함. 		

㉡ 꾸삐 씨의 행복 여행

갈래	(소설)	성격	서사적, 교훈적
제재	행복		
주제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일치할 때 얻어지는 행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삐가 여행과 노승과의 만남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제시함. • 배움 목록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타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논리적
제재	행복		
주제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인 행복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활용하여 행복의 의미를 주장함.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제재 구조도

㉠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처음	공리주의자로서 밀이 정의한 행복
중간	행복의 개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 행복에 관한 (벤담)과 밀의 관점 차이 - 밀이 제시한 행복의 본질과 조건 - 행복의 개념과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끝	밀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

㉡ 꾸삐 씨의 행복 여행

처음	노승에게 자신이 깨달은 행복의 배움 목록을 보여 주는 꾸삐
중간	꾸삐가 내민 행복의 배움 목록에 만족하는 (노승)
끝	노승과의 산책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꾸삐

☞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처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의 (진화 생물학)적 견해
중간	행복의 조건과 행복을 놓치게 하는 여러 요인
끝	개인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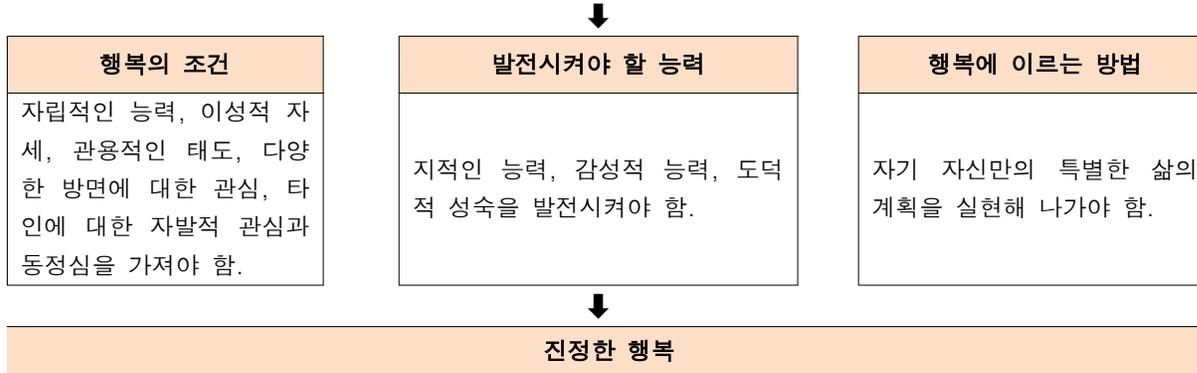
 핵심 강의

☞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 밀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

인간의 발전에 관한 두 가지 가정

-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이자 (행복) 그 자체임.
-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음.



- 진정한 행복
-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

☞ 꾸삐 씨의 행복 여행

◎ 노승과의 만남에서 느낀 꾸삐의 깨달음

노승과의 재회	노승이 자신의 행복 배움 목록을 읽는 태도를 보며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라는 또 하나의 배움을 얻음.
노승과의 산책	(행복)이란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자신과 지금 이 순간이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음.

☞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 오컴의 날로 정리한 행복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행복

-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은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고 주장함.
- 행복은 가치나 이상, 도덕적 지침이 아닌 구체적인 경험이며,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음.

글쓴이의 주장

-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하는 것임.
-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이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밀은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계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추는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밀은 주지주의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인간의 내재된 감정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또한 밀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한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는 그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꾸뻘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 시간을 명상을 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 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꾸뻘은 환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 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자문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라!’

(중략)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꾸뻘이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또다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뻘은 기뻐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꾸뻘은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뻘과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꾸뻘은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꾸뻘은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에는 20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있다.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위계적 단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전제는 아래 단계의 기본적인 하위 욕구들이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보다 고차원적인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슬로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가 되려 하고, 가장 빠른 직구를 던지려고 할까? 즉, 왜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할까? 이에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간명하게 설명한다. 자아 성취를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한다는 것이다.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중략)

몇 해 전부터 내가 재직하는 대학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하려는 학생 수가 급증했다. 그러다 보니 학점이 좋은 학생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의외의 답이 나왔다.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보는 일이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에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다. 일상에서 쾌락에 뿌리를 둔, 기쁨과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들을 자주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기 위해 쾌락주의자가 되자는 말인가? 다소 그럴 필요가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문답의 형식을 사용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는 ‘꾸뻏’이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직접 여행하며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과정을 그린 기행문이다.
- ③ (다)는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나)는 (가), (다)와 달리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행복의 의미를 도출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행복이라는 공통된 제재를 가지고 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보기1>과 (나)의 글을 바탕으로 행복 배움 목록을 <보기2>에서 골라 추가하여 작성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으로 묶인 것은?

<보기1>

배움 1 :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배움 2 :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배움 3 :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 4 :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배움 5 :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배움 6 :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배움 7 :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배움 8 :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배움 9 :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배움 10 :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보기2>

- ㉠ 행복은 남들과 경쟁하며 성취해 내는 것이다.
- ㉡ 행복은 성취하여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행복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 ㉣ 행복은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다)의 관점으로 <보기>의 학생에게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종이는 민첩성과 체력 등 운동신경이 뛰어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게다가 뛰어난 운동능력과 더불어 학업성적도 1등을 유지하고 있어 주변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현종이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아까워서 의대생이 되기로 생각을 바꿨다.

- ① 부모를 포함하여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임을 알려 준다.
- ②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지금에 충실한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각이 곧 행복한 미래로 연결됨을 알려 준다.
- ④ 명분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 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전시켜 그 능력을 발휘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가)를 읽고 밑의 생각을 정리해본다고 할 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밑은 (, ,)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밑이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에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 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밑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인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밑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밑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나) 행복도 오컴의 날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가치나 이상, 혹은 도덕적 지침이 아니다. 천연의 행복은 레몬의 신맛처럼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을 뒷전에 두고 행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런 사고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 미국 시카고 대학 씨이 교수의 유명한 초콜릿 연구가 있다. 대학생들에게 2온스의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과 0.5온스의 하트 모양의 초콜릿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예쁜 것을 선호하는 보편적인 심리를 고려했을 때, 먹는 즐거움은 하트 모양 초콜릿이 더 크겠지만 68%의 학생들은 크기가 더 큰 바퀴벌레 모양 초콜릿을 선택했다. ‘일반인의 합리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까짓 모양보다는 객관적인 양의 차이를 비교해서 내리는 선택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꾸뻘은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꾸뻘과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꾸뻘은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노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꾸뻘은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꾸뻘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 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 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었다.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꾸뻘은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상록고등학교 (경기)

8. (가)의 ‘밑’의 관점에서 다음 글과 관련한 행복의 조건으로 적절한 것은?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시작을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각자 뛰어가지 않

고 모두 손을 잡고 가서 그것을 함께 먹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함께 뛰어갔지?”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투(Ubuntu)’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라고 대답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온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 ①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 ②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 ③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 ④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 ⑤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을 갖는 것

상록고등학교 (경기)

9. (나)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 ②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행복할 것 같아.
- ③ 지금은 공부에만 열중하고 친구와 우정을 쌓는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 ④ 부모님은 교대를 가라고 하시지만 나는 내 꿈을 접지 않고 배우의 길을 가려고 해.
- 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건 나에게도 행복한 일이 아닐 것 같아.

상록고등학교 (경기)

10. (다)에 나타난 행복관에 대해 나는 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복은 지나가버리면 돌이킬 수 없으니 소중히 다루어야 해.
- ② 행복은 멀리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도 있어.
- ③ 행복은 목표를 세우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어.
- ④ 진정한 행복은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지지 않아.
- ⑤ 근원적인 행복은 스승과의 만남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도달할 수 있어.

상록고등학교 (경기)

11. 다음 글에 나타난 독서의 효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책을 읽은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는 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그 새벽부터는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특히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세상을,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나는 사회 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위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그들이 겪은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 과학이며,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 온 사회 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몸속의 모든 핏줄이 하나로 짝 물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듯 아련한 기분이었다.

- ①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
- ② 삶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③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 ④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타인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 ⑤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2-(1) 미세 먼지의 실체



제재 개관

갈래	설명문	성격	객관적, 분석적, 사실적, 예시적
제재	미세 먼지		
주제	미세 먼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 먼지의 발생 과정을 인과 관계를 통해 분석적으로 밝힘. • 그래프, 사진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의 이해를 도움. • 출처가 분명한 공신력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임. •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도를 높임. 		



제재 구조도

처음	미세 먼지에 대한 관심과 실제 미세 먼지 농도의 변화
중간	미세 먼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 크기에 따른 미세 먼지의 분류와 그에 따른 종류 - 미세 먼지의 (생성 원리) -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실태 - 기상 조건과 미세 먼지의 상관관계
끝	미세 먼지를 비롯한 대기 연구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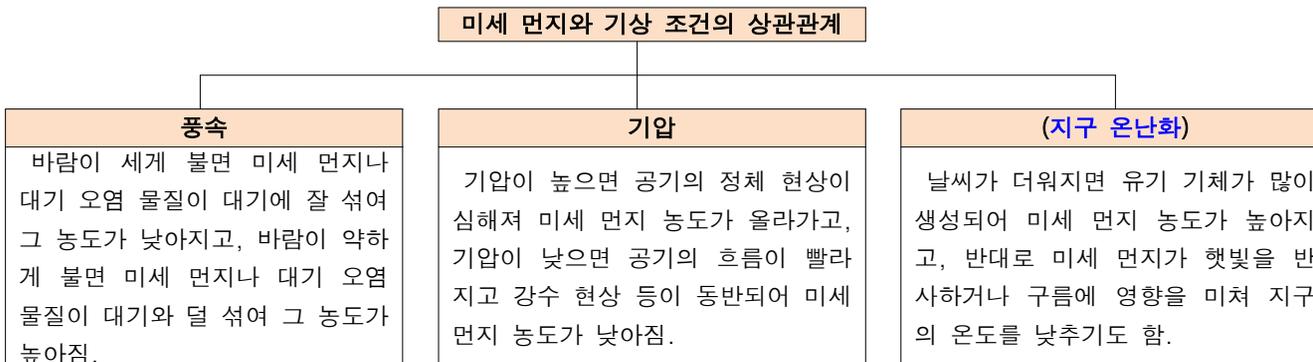


핵심 강의

1. 크기에 따른 미세 먼지의 분류와 생성 원리

	입자 지름	종류	생성 원리
미세 먼지	10 μ m 이하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등	먼지, 해염 입자, 꽃가루 등이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감.
초미세 먼지	2.5 μ m 이하	검댕, 황산과 황산 암모늄, 해양 유기물 등	공기 중의 초미세 먼지 생성 물질이 서로 달라 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 발생함.

2. 미세 먼지와 기상 조건의 상관관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언제부터인가 미세 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 먼지.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 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미세 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0,000건이 채 안 되던 미세 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14년에는 40,000건 이상, 2016년에는 60,000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나)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 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미세 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 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미세 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미세 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다) 미세 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PM-10은 입자 지름이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중략>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 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덜합니다.

(라)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 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 먼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 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 먼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 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 먼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 ㉢미세 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 먼지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이 까만 미세 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 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 암모늄이나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 먼지들입니다. <중략>

(바) ㉣초미세 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 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 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 초미세 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 황, 질소 화합물, 암모니아, 유기 기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 먼지를 생성해 낼까요? 우선 이산화 황은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 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 먼지가 생깁니다.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 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 먼지를 만들어 냅니다.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 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 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 탄소'라는 초미세 먼지를 만들어 냅니다.

(아) 그렇다면 초미세 먼지나 미세 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 먼지 농도가 20 μ g/m³보다 높습니다. 1m³당 들어 있는 초미세 먼지 농도가 20 μ g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 보건 기구(WHO)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 먼지 농도의 기준으로 10 μ g/m³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 먼지 농도는 아직은 세계 보건 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폈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 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세 먼지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미세 먼지의 농도증가와 대중의 관심은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 ② 출처가 분명한 객관적 정보를 통해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가 미세 먼지 농도 변화보다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③ 미세 먼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후 각각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④ 권위 있는 단체의 기준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초미세먼지의 생성원리를 유사한 현상과 비교, 대조한 후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물질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조그만 액체 혹은 고체 알갱이를 일컫는 미세먼지. 우리는 언제부터 미세먼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보도된 횟수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20,000건이 채 안 되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횟수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14년에는 40,000건 이상, 2016년에는 60,000건 이상 보도가 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 보도가 늘고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것일까요? 미세먼지 PM-10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큰 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이 점점 낮아진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PM-10과 PM-2.5로 **㉡나눌** 수 있습니다. PM-10은 입자 지름이 10 μ m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단면 지름이 80~100 μ m이니 그보다 10배 정도 **㉢작은** 것입니다. PM-2.5는 입자 크기가 2.5 μ m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최근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훨씬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10년간 농도 변화를 **㉤보면**, 농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보다는 감소 폭이 조금 덜합니다.

그렇다면, PM-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먼지가 있습니다. 봄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황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다음으로 해염 입자가 있는데,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공기 중에 부서져 조그만 알갱이로 남는 걸 말합니다.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연 미세먼지'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들은 모두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초미세먼지의 범주에 **㉩들여**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의 예로는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검댕이 대표적입니다. 이 까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엄청 작은 초미세먼지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의 배기구에 흡수 장치를 달아서 이전보다 배기가스의 양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검댕 외에도 대기 중에 쌓여 있다가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황산과 황산 암모늄이나 해양 유기물 등은 각기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자연 미세먼지는 땅이나 바다에 있다가 바람이 불면 대기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 흙먼지가 일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흙먼지를 '비산 먼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죠. 황사도 이와 같은 원리로 발생합니다. 흙이 많은 동아시아의 아주 건조한 땅에 강한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하늘로 떠오르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게 바로 황사이죠.

초미세먼지의 생성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더운 여름날 음료를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죠? 그리

고 추운 날 아침에는 밖에 안개가 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서로 달라붙는 응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도 이와 같은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됩니다. 단, 물방울은 수증기가 재료라 인체에 무해하지만 초미세먼지의 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이산화황, 질소화합물, 암모니아, 유기기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 물질들은 어떻게 초미세먼지를 생성해 낼까요?

우선 이산화황은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이 이산화황 여러 개가 서로 달라붙으면 '황산'이나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라 크기가 훨씬 작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 중에서 서로 달라붙어 '질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냅니다. 소나 돼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 '암모늄'도 있습니다. 화학적 용매를 쓸 때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기체도 대기 중에서 산화 과정을 통해 서로 달라붙으면 '유기탄소'라는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질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μ g/m³보다 높습니다. 1m³당 들어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μ g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세계 보건 기구(WHO)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초미세먼지 농도의 기준으로 10 μ g/m³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은 세계 보건 기구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환경 정책을 펴기 때문이죠. 문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 최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곡고등학교 (서울)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미세먼지 PM-10과 PM-2.5의 생성 원리는 서로 다르다.
 - ② 입자 지름이 약 10 μ m 이하인 먼지는 응결 현상에 의해 생성된다.
 - ③ 이산화황은 입자 크기가 2.5 μ m 이하인 초미세먼지에 해당한다.
 - ④ 자동차 배기구에 여과 장치를 달면 미세먼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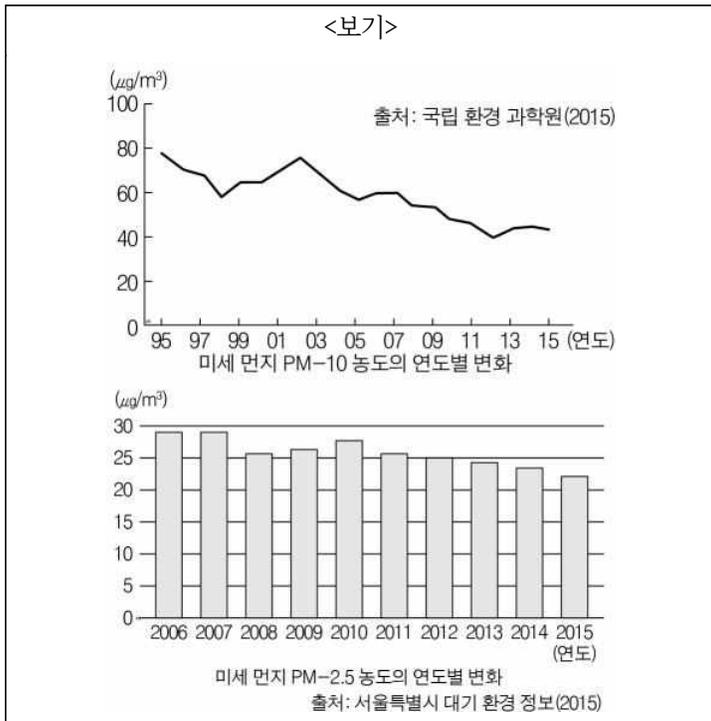
화곡고등학교 (서울)

7. 뒷글을 읽은 독자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개) 1,2,4

- ① 미세먼지와 비산 먼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② 유기 기체가 나무에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버스나 트럭의 배기가스가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인가?
- ④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초미세 먼지가 인체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곡고등학교 (서울)

8. 뒷글과 <보기>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의 농도 변화를 보면, 초미세 먼지의 감소폭이 더 큼을 알 수 있다.
- ④ 2014년을 기점으로 서울특별시의 대기 오염도는 낮아졌지만 타 도시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환경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대중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화곡고등학교 (서울)

9.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그를 보았다.
- ② ㉡ : 음료수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③ ㉢ :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사진이 잘 나온다.
- ④ ㉣ : 우리 원장님은 오전에만 환자를 보십니다.
- ⑤ ㉤ : 요즘은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들어가 버렸다.

화곡고등학교 (서울)

10.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은 반드시 앞에 오는 관형어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품사의 기능은 같다.
- ② ㉨과 ㉩은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로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 ③ ㉨과 ㉩은 수량이나 순서와 같은 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로 품사 분류 기준으로 보면 그 기능 및 의미는 같다.
- ④ ㉥과 ㉦은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로 품사를 기능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용언에 해당한다.
- ⑤ ㉦은 복수 접미사가 붙을 수 있고, ㉩은 형용사 어간 '높-'에 명사화 접미사 '이'와 보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화곡고등학교 (서울)

11. <보기>를 읽고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선생님 : 품사는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입니다.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형태에 따라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 것입니다'에서 ㉦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두 적어보세요.

학생 : (㉪)



제재 개관

갈래	수기	성격	감정적, 현실적, 고백적
제재	이봉창의 삶		
주제	(조선인)으로서 이봉창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거사의 배경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함. • 일제 강점기 당시의 시대상과 조선인의 현실 인식이 드러남. 		



제재 구조도

전반부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으로서 견뎌야 했던 차별과 그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
후반부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사를 치르게 된 계기



핵심 강의

1. 조선인으로서 받은 차별과 그에 대한 심경

조선인으로서 받은 차별	이봉창의 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산역 전철수 시절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지만, 조선 사람들은 승진이 되지 않음. • 일본인 전철수와 조선인 전철수는 상여금에서도 차이가 남. • 일본의 우체국에서는 구직 서류를 보고 조선인임이 밝혀지자 채용을 거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과 차별 대우를 받는 것에 자포자기함. •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느껴짐. •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함. • 자신을 불쌍한 인간이라고 생각함.

2. 이봉창의 현실 인식

'이태왕 전하', '한일 합방', '신일본인',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자신을 (신일본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조선인이라 차별받는 현실에 괴로워함.
--	---

3. 이봉창의 태도 변화

조선 독립 운동에 몸을 바치려 했지만 기회를 얻을 수 없음.	→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살아 보려고 함.	→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았던 것을 후회함.
-----------------------------------	---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28년 일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생각해 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뵈는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 신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당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며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져고 했다.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나)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 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 주지 않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 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 주고,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중략)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 보려고 했다.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쓰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 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펐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다)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 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 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갔다.

상하이에서는 임시 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게 되어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 때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 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 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

1932년 2월 13일 도쿄다마 형무소 내 피고인 이봉창

상록고등학교 (경기)

1.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나’가 오사카에서 상하이로 간 이유
 ㄴ ‘나’가 교토의 유치장에서 석방되지 않은 이유
 ㄷ ‘나’가 생각을 바꾸어 일본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유
 ㄹ 상하이의 영국 전자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하는 이유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상록고등학교 (경기)

2. (가)~(다)에 나타난 ‘나’의 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성찰적 - 자조적 - 의지적
- ② 구도적 - 관조적 - 예찬적
- ③ 비판적 - 도피적 - 회의적
- ④ 반성적 - 낙관적 - 도피적
- ⑤ 운명적 - 달관적 - 긍정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치 없는 세상’ 인식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계(係)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취직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하고 말았다. <중략> 어느 날 우메다 역 앞의 시립 직업소개소를 찾아가더니 고베 철도 우체국 열차계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 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들고 싶었다. ㉢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

죄 없이 갇힌 유치장

1928년 일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생각해 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빈 일이 없고, ㉣ 한일 합방 후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중략>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 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받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 주지 않았다. ㉤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 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 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 주고,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한때의 일본인 행세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 보려고 했다.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중략>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소리를 질렀다. ㉥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펐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3. ㉠~㉥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심리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봉창이 자신을 삶을 가치 없다고 여긴 이유는 일본인들의 차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못난 자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② ㉡ 일본에서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게 되자 조선인이라면 인간 취급을 해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 ③ ㉢ 이봉창이 자신을 ‘신일본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등장인물의 정체성이나 역사의식이 처음부터 뚜렷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④ ㉣ 일왕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를 했지만, 별다른 죄도 없이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억울함을 느끼고 이를 계기로 독립 운동의 뜻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
- ⑤ ㉤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현실의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선인을 돕지 못하고 일본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서글픔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4. <보기>는 밑줄 친 ㉡ 당하더라도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하다¹ ㉡

㉠ 【…에/에게】 해를 입거나 놀림을 받다.

㉢ 사기꾼에게 당하다

㉣ 【…에/에게】 맞서 이겨 내다.

㉤ 사람을 부리는 수완에 있어서는 그에게 당할 사람이 없다.

③ 【…에게 …을】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

④ 【…을】

(1) 좋지 않은 일 따위를 직접 겪거나 입다.

(2) 일이나 책임 따위를 능히 해내거나 감당하다.

- ① 당하다¹ ①에 해당하는 예시로 ‘이번 만우절에도 그의 거짓 말에 또 당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당하다¹ ②에 해당하는 예시로 ‘이 근방에서는 그들을 당해 낼 패거리가 없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당하다¹ ③에 해당하는 예시로 ‘자식의 고집을 당해 낼 부모는 드물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당하다¹ ④(1)에 해당하는 예시로, ‘사고를 당하다, 피해를 당하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당하다¹ ④(2)에 해당하는 예시로 ‘혼자서는 이 많은 일을 당해 낼 도리가 없다’를 넣을 수 있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5. 뒷글을 내용을 읽고 난 후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본인과의 차별에 대해 주인공은 처음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직장을 사직하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의 계획적이지 않은 성격을 알 수 있다.
- ③ 일제 강점기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은 서툰 일본어 능력으로 인해 많은 곤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④ 취직이 되지 않는 이유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어느 정도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힌 경험을 통해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깨닫고 이를 바로 행동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ㄱ.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생략하거나 함축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글을 쓴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한다.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추론적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나 문장,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고, 독자는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한다. 또한 글이 쓰인 배경과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글의 숨겨진 주제나 목적,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해야 한다.

ㄴ.

동아일보

1994년 12월 15일

이봉창 의사 옥중 수기 발견

의거 동기, 항일 생애 62년 만에 햇빛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 재판소 형사 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됐다. 또 이 의사가 의거 후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및 총 5천 5백여 쪽의 재판 기록과 관련 일(日) 외교 문서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옥중 수기와 관련 기록은 일왕 위해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한일(韓日)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국제 한국 연구원 설립자)가 최근 히타노 아키라 전 일본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 발굴했다.

- ① 글쓴이가 형무소에서 자신의 행적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조선인으로서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거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른 나이에 직장 생활을 했던 것은 총독부의 강제토지 수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③ 글쓴이가 전철수로 다니던 직장을 시작한 것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조선인 차별과 관련이 깊다.
- ④ 글쓴이가 경찰서 유치장에 11일간 갇혀 있었던 것은 일본형사가 이봉창이 지니고 있던 편지의 한글과 한문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 ⑤ 글쓴이가 자신을 일본인으로 속여 살리고 했던 것은 식민지 현실에서 조선인으로서 받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이봉창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기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 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가치 없는 세상’ 인식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두 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계(係)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그때, 나의 가치 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다.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취직자리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직하고 말았다.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다.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 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 3일 전에 채용이 끝났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그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우메다 역 앞의 시립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더니 고베 철도 우체국 열차계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호적 등본과 신원 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 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채용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 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 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다. (중략)

죄 없이 갇힌 유치장

1928년 일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생각해 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태왕 전하의 용안을 뵈는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 신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이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그러니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당에 들어가게 해 주었다.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며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져다 갔다.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는 것이었다.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 잡혀 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날 밤으로 받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 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려 주지 않았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 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려 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로 읽어 주고, 고베에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그 후 오사카에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②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 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 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 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한때의 일본인 행세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 보려고 했다.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쓰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쓰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 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 하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한번은 일본 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 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참으로 서글팠다.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여러 번 후회했다.

‘두려움 없는 삶’ 각오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 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 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 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갔다.

상하이에서는 임시 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을 만나게 되어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 때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 정신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 준 서류란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하게 된 것이다.

1932년 2월 13일 도쿄다마 형무소 내 피고인 이봉창
- 「동아일보」(1994. 12. 15.)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이 받은 차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인은 일본인과 같이 동일한 노동을 하더라도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없었다.
- ② 일본인은 정기적으로 승진이 되었으나, 조선인은 승진의 기회가 없었다.
- ③ 조선인은 죄 없이 일본인에게 폭력을 당해도 항변하지 못하

고 지내야 했다.

- ④ 조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속을 당해 유치장에 갇히기도 하였다.
- ⑤ 일본인은 조선인이 물건의 값을 받거나 흥정하려 하면 욕을 하거나 물건을 팔지 않았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8. ㉠이러한 상황이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글쓴이가 ----- 상황

충주대원고등학교 (충북)

9. 이 글은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쓴 옥중 수기이다. ‘이봉창’이 당시 이 글을 쓴 목적(혹은 의도)을 서술하시오.



제재 개관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체계적
제재	경쟁		
주제	인간을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경쟁의 필요성과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가의 견해를 근거로 들어 논리적으로 전개함. • 일상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설득적으로 제시함. 		



제재 구조도

서론	발전을 이끄는 힘이자 원동력인 경쟁을 주장하기 위해 다양한 예를 제시함.
본론	경쟁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임을 주장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함.
결론	함께 추구하는 경쟁의 가치를 내세우고,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함.



핵심 강의

1. 경쟁이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는 철학자들의 견해

요한 하위징아	(놀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것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관됨. 결국 인간은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함.
토머스 홉스	인간 본성의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중 경쟁심은 재물이나 이익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들. 즉,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주장함.
(애덤 스미스)	인간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앞서는 이기적인 존재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2.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경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	→	글쓴이의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 •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 •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 		경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2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 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 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일구어 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것 역시 경쟁의 힘이 컸습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 축구 리그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아 온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직 시절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때어 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의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 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

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서 존재하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통시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문답법과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④ 중심 화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
- ⑤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반된 견해에 대한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는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놀이를 할 때 인정받고 싶은 심리는 경쟁 본능 때문이다.
- ③ 동정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
- ④ ‘히딩크’ 감독은 무한 경쟁 훈련을 통해 선수들의 실력 향상을 꾀하였다.
- 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자유 경쟁을 통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고등학교 (부산)

3. ㉠~㉣ 이론가의 공통된 견해를 근거로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 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나)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라)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는 존재이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화곡고등학교 (서울)

4. 밑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타인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③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달라진 사회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학자의 이론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화곡고등학교 (서울)

5. 밑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때, 판단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글의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가?
㉡ 글쓴이의 생각을 넘어서서 독자 자신만의 생각을 구성할 수 있는가?
㉢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가?
㉣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재미와 감동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느낄 수 있는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화곡고등학교 (서울)

6. 밑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 쓰시오.

경쟁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요한 하위징아는 (㉠)은/는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것은 경쟁 본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고, 토머스 홉스는 (㉡)은/는 인간 본성의 하나로 다른 사람과 투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인간은 (㉢)인 존재로 이를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2002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 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 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직 시절 선의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때어 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의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나)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 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서서 존재하며,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효율성과 적자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은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는 긍정적 상호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라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쟁을 통한 공정한 능력주의를 통해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 ② 지속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③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존재이다.
- ④ 공격적인 인간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
- ⑤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경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3-(2)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제재 개관

갈래	논설문	성격	설득적, 비판적
제재	놀이터		
주제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놀이터의 필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함.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임. 		



제재 구조도

서론	놀이터의 안전 문제와 놀이 기구 발전의 세 가지 단계 - 기능적 놀이 단계: 놀이 기구의 기능을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단계 - 기술적 놀이 단계: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놀이 기구를 활용하는 단계 - (사회적) 놀이 단계: 놀이 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창의적으로 놀이하는 단계
본론	현재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결론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놀이터의 필요성



핵심 강의

1. 오늘날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과 그 원인

오늘날 놀이터의 문제점

-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획일적인 놀이 기구
- 놀이터 시설 관리에 관한 어른 중심의 (편의주의)적 사고
- 표면적인 안전만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안전 제일주의적 태도



재미없고, (도전)할 것이 없는 오늘날의 놀이터

2. 글쓴이가 바라는 놀이터의 모습

-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
- 안전하지만 도전과 모험이 가능한 공간
- 아이들 스스로 놀이를 즐기고 (안전)을 배울 수 있는 공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일본의 건축가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는 책에서 놀이 기구가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의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다. 기능적 놀이 단계란, 놀이 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기술적 놀이 단계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놀이 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 단계란 이 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놀이터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도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떠올려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 기구는 아직도 첫 번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놀이터가 규정만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고만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 기구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이 길을 걷는 방식은 다르다. 아이들은 막히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넘어서 가려 한다.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반달리즘(vandalism)’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놀이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 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중략-

그런데도 고무 매트나 고무 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 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놀이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해 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 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야 한다. 즉,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핵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며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④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인식의 변화에 따른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놀이 기구는 초보적 단계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 ② 창의적 놀이 기구가 많은 놀이터는 아이들의 반달리즘 경향을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놀이터에 고무 매트나 고무 칩을 사용하는 것은 놀이터에 대한 어른들의 편의주의적 사고 때문이다.
- ④ 어른 눈에 보이는 표면적 안전을 지키기보다 아이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안전을 전제로 한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놀이터가 필요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의 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이고, 또 하나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부상은, 아이들이 놀다가 피부에 작은 상처가 나거나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의미한다. 우리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부상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물에 목이 걸린다거나 난간이 허술해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부상에 속한다. 이런 부상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부상이 발생했다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놀이터의 설계·시공·관리를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놀이터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대부분 놀이터에서 위험 요소가 걸러져 있다.

한 일본의 건축가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는 책에서 놀이 기구가 기능적 놀이 단계, 기술적 놀이 단계, 사회적 놀이 단계의 순서로 발전해 간다고 밝혔다. 기능적 놀이 단계란, 놀이 기구에 갖추어진 놀이의 기능을 아이들이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기술적 놀이 단계란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노는 것으로, 놀이 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향상되는 자체가 놀이인 단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놀이 단계란 이 기구를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기능적 놀이 단계에서 사회적 놀이 단계로 나아가며 놀이터에서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도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놀이터를 떠올려 보자.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와 놀이 기구는 아직도 첫 번째 기능적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놀이터가 규정만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에게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고만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재미없고 도전하지도 못하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의 흥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놀이터를 지루하게 만들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놀이터나 놀이 기구가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느낄 때, 아이들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놀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길을 걷는 방식과 어른들이 길을 걷는 방식은 다르다. 아이들은 막히면 어른처럼 돌아가지 않고, 넘어서 가려 한다. 아이들은 보통 어떠한 것이든 다르게 표현하거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반달리즘(vandalism)’ 경향을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놀이이기 때문이다.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달리즘’ 경향의 원인은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놀이 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아이들의 이러한 지루함과 싫증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부상을 막기 위해 미끄럼틀에 붙여 놓은 “거꾸로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문구는 오히려 놀이터를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는 거꾸로 올라가고 싶

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구는 미끄럼틀이 아이들에게 올라갔다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말고는 다르게 응용할 수 없는 놀이 기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이러한 미끄럼틀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놀이터는 어디를 가나 놀이터 중앙의 조합 놀이대 1개와 그 주변에 그네, 또는 시소 2개, 고무 매트나 고무 칩 포장된 바닥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즉, 창의성을 갖춘 놀이터가 아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설치한 놀이터 바닥은 대부분 탄성 고무 칩이다. 그런데 모래나 작은 크기의 자갈 또는 나무껍질인 바크와 견주었을 때 안정성 면에서 탄성 고무 칩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 최근 국가 표준이 만들어져 개선은 되었지만, 오히려 한 여름에는 탄성 고무 칩 바닥 때문에 열기가 위로 솟구쳐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고무 매트나 고무 칩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건강이나 놀이터의 기능보다는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을 찾으려는 편의주의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자칫 아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격려하는 놀이터보다는 어른들에 의한, 어른들의 편의만을 위한 놀이터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루한 놀이터만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회적 놀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위험하다며 못하게 하는 어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 즉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안전은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워야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을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보장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놀이는 도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하지 않던 것을 해보거나 할 수 없었던 것을 날마다 조금씩 도전해 가는 과정 자체가 놀이인 것이다. 물론 놀이터에서 자주 다쳐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회복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상은 무엇이 위험한 것이고,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터를 유아 수준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었다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스로 안전한 방법을 찾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제 놀이터는 아이들이 진취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기둥 옆에 ‘도전’과 ‘모험’이라는 기둥도 함께 세워야 한다. 즉, 안전과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놀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조해야 하는 안전의 관점에서, 흔히 위험이라고 말하는 요소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창의적인 놀이터의 사례
- ②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유형
- ③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 ④ 아이들이 반달리즘 경향이 보이는 이유
- ⑤ 우리나라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이유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아이들의 흥미를 고려하지 못한 지루한 놀이터는 사고 위험이 높다.
- ②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회복 가능한 가벼운 찰과상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 ③ 놀이터 관리 규정을 충족시킨 놀이터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④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키우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우리나라 놀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도전, 모험이라는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혜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다음 <보기>는 위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 놀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어른들의 (㉡)를/을 중시하고 있어 재미없고 (㉢)할 것이 없는 공간이다.

놀이터는 (㉣)인 행동과 긍정적 사고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 (㉢)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상록고등학교 (경기)

6. 윗글에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루한 놀이터가 아이들에게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놀이터에서 생기는, 아이들 부상의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 ③ 우리나라 ‘놀이 안전 규정’의 내용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④ 탄성 고무 칩으로 된 놀이터 바닥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⑤ 놀이터에 대한 어른 중심의 편익주의적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상록고등학교 (경기)

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리나라 대부분의 놀이터는 ‘놀이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② 창의적이고 도전 가능한 놀이터에서 아이의 안전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
- ③ 놀이터에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 ④ ‘반달리즘’ 경향은 아이들이 기능적 놀이 단계보다 사회적 놀이 단계의 놀이 기구에서 놀 때 더 활발히 나타난다.
- ⑤ 우리나라 놀이터는 놀이 기구의 기능을 초보적으로 체험하는 단계가 아닌 놀이 기구를 활용하는 기술을 향상시키며 노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재 개관

갈래	(수필)	성격	자아 성찰적, 반성적
제재	'미안합니다.'라는 말		
주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미덕의 말, '미안합니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의 일화에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주제를 드러냄. •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관련한 두 가지 일화를 관련지어 내용을 전개함. 		



제재 구조도

처음	'미안하다.'라는 말에 인색한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 말에 관련된 '나'의 자격지심
중간 1	강의 시간에 '영수'를 오해한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나'
중간 2	(주차) 문제로 화를 내는 경비원에게 사과를 하여 일을 원만히 해결한 '아버지'
끝	과거 '영수'의 일에 대한 '나'의 자기반성



핵심 강의

1. 인물들의 특성

'나'	'미안해.'라는 말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이후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됨.
서훈	말을 더듬는 친구 영수를 위해 대신 나서서 도와주는 인물로, 남을 배려할 줄 앎.
(영수)	심각한 말더듬이 증상을 가지고 있어 본의 아니게 '나'의 노여움을 사게 됨.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잘못을 인정할 줄 알며 예의바르고 남을 이해할 줄 앎.
경비원	'나'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원칙에 충실하나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앎.

2. 두 가지 일화를 통한 주제 제시

첫 번째 일화	영수에게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는 '나'
두 번째 일화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아버지)와 경비원



'나'와 아버지의 일화를 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주제를 드러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생큐(Thank you).’, ‘소리(Sorry).’를 되뇌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해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오랜 유학 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은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 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다.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 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 의식이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어 그리 어렵겠는가?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 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던 말인가? 그것은 나에게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나는 야유까지 했다.

반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영수와 서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야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뽀뽀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 하라고 할까?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났다.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학기가 시작될 때, 미리 자기에게 이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 달라고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해서 오히려 굵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저녁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곧 나올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아 글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차에 올라탔다.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대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봐요.”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된 건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흔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라고 생각하면서 뾰로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

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채신없어 보이잖아.”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채신? 원, 잘못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은 무슨 채신이나?”

문득 영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 체면은 무슨 선생 체면?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애, 영수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것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장영희, ‘내 생애 단 한 번’

인항고등학교 (인천)

1. 윗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술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제가 담긴 일화를 관련지어 구성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여러 대상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여 새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
- ③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공간적 배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대상을 이루는 구성요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2. 윗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부근성이 투철하며 삶의 투쟁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② 미안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자존심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③ 영수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④ 서훈이의 행동의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 ⑤ 아버지와 경비원이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배우고 있다.

인항고등학교 (인천)

3. ㉠은 관용구를 사용하여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에서 그와 같은 표현방식을 지닌 문장 두 개를 찾아 쓰시오.

<조건>

- 반드시 문장의 형태로 쓸 것. 단,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 아닐지라도 표현방식이 모두 나타나 있으면 정답 처리함.
- 문장을 세 개 이상 쓰면 전부 오답 처리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생큐(Thank you).’, ‘소리(Sorry).’를 되뇌는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해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오랜 유학 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은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 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다.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쩔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 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어 그리 어렵겠는가?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 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해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훈이가 책을 읽을 수 있던 말인가? 그것은 나에게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로 착각할 정도인가?”

나는 아유까지 했다.

반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영수와 서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 주었다.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훈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전체 정답>>

1-(1)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1.① 2.① 3.① 4.⑤ 5.일장춘몽 6.② 7.④ 8.③ 9.인간의 삶은 유전자의 문제로 환원된다. 10.① 11.④ 12.우리는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이다. 사회 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동안 공부 했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듯한 혼란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13.② 14.⑤ 15.① 16.④ 17.① 18.③ 19.② 20.㉠ 사회 생물학 ㉡ 이기적 유전자 21.② 22.⑤ 23.③ 24.① 25.② 26.① 27.② 28.④ 29.사회 생물학은 수업 교재를 목적으로 읽었다. 이기적 유전자는 관련된 책들을 다 읽고 보고 싶은 목적으로 읽었다. 니체니 쇼펜하우어니 하는 철학자들의 책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읽었다. 30.④ 31.④ 32.② 33.인간이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닌 이유 첫 번째는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해 글쓴이가 새로이 가지게 된 구체적 감정은 경외감과 기대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34.③ 35.⑤ 36.① 37.④ 38.④ 39.② 40.②

1-(2) 우리는 행복한가

1.⑤ 2.② 3.④ 4.② 5.⑤ 6.④ 7.지성, 감성, 도덕성 8.⑤ 9.④ 10.② 11.④ 12.② 13.② 14.(1)위 학생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위의 학생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를 하면서 지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5.④ 16.④ 17.④ 18.④ 19.④ 20.① 21.④ 22.④ 23.④ 24.(1)노승이 배움의 목록을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는 것 (2)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25.③ 26.③ 27.③ 28.③ 29.③ 30.① 31.⑤ 32.④ 33.⑤ 34.① 35.② 36.④ 37.① 38.② 39.⑤ 40.④ 41.⑤ 42.③ 43.(1)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다. (2)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4.② 45.① 46.① 47.③ 48.④ 49.③ 50.④ 51.③ 52.⑤ 53.③ 54.① 55.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적인 능력', '감성적 능력', '도덕적 성숙'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규정하였다. 56.④ 57.④ 58.① 59.⑤

2-(1) 미세 먼지의 실체

1.② 2.② 3.⑤ 4.최근 미세 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세 먼지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5.② 6.① 7.①②④ 8.② 9.④ 10.④ 11.작은, 입니다 12.⑤ 13.④ 14.⑤ 15.⑤ 16.④ 17.③ 18.고기압일수록 정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미세 먼지 농도가 올라간다. 19.미세 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친 사례로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산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을 예로 드는 '예시'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피나투보 화산 폭발과 대기 온도의 변화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20.④ 21.⑤ 22.② 23.⑤ 24.㉠ 고기압 ㉡ 잘 섞이지 않는 ㉢ 올라갑니다 25.⑤ 26.(1) 거꾸로 미세 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2) 많은 양의 미세 먼지가 성층권에 올라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반사되었기 때문이다. 27.④ 28.③ 29.② 30.② 31.⑤ 32.② 33.④ 34.① 35.② 36.① 37.③ 38.⑤ 39.② 40.④ 41.③ 42.자동차를 이용할 때 배출되는 '질소 화합물'은 초미세먼지의 재료로 인체에 유해하므로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닌다. 43.과거 20년간의 풍속과 미세 먼지 농도의 평균을 내고 매년 편차를 비교하여, 풍속과 미세 먼지 농도 간의 관련성을 찾는 연구를 한 결과 풍속의 저하가 미세 먼지 농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4.② 45.① 46.㉠: 지구 온난화 또한 ㉡: 여름철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과 나무가 유기 기체를 내뿜는 것을 비교함. 47.① 48.⑤ 49.① 50.⑤ 51.④

2-(2)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1.③ 2.① 3.① 4.③ 5.⑤ 6.① 7.② 8.일본에서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9.조선인인 자신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일왕을 암살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이다. 10.① 11.④ 12.② 13.③ 14.생각해, 사람이다. 15.⑤ 16.④ 17.③ 18.자신을 신일본인으로 여기며 살던 이봉창은 일왕 즉위식을 보러갔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히면서 조선인이라 차별받는 현실을 인식하고

<<전체 정답>>

분노하며 반일 감정과 민족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19.추론적 읽기,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20.① 21.㉠ 일본의 침략 이후 일본의 황실보다 격하하여 부른 호칭이기 때문이다. ㉡ 고종, ㉢ 경술국치, ㉣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의 국민들이 일본인으로 동화된 상태 22.② 23.① 24.조선인인 자신이 어떠한 차별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이 일왕을 암살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25.① 26.② 27.⑤ 28.④ 29.③ 30.② 31.④ 32.② 33.③ 34.⑤ 35.⑤ 36.③ 37.⑤ 38.② 39.⑤ 40.① 41.② 42.③ 43.⑤ 44.② 45.(1)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의 행동도 정당하다. (2) '이봉창'은 독립이 정당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방삼복'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독립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3-(1)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1.② 2.③ 3.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4.③ 5.② 6.㉠ 놀이 ㉡ 경쟁심 ㉢ 이기적 7.④ 8.② .① 10.타당성: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가, 공정성: 글의 내용 혹은 화제 등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가, 적절성: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의 주장이나 설명을 뒷받침하기에 적합한가 11.⑤ 12.㉠ 발전 ㉡ 본성 13.① 14.③ 15.⑤ 16.③ 17.② 18.④ 19.② 20.⑤ 21.④ 22.(예시) 글쓴이는 6·25 전쟁 이후 보릿고개를 이겨내고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일구기까지 사례를 근거로 들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경쟁을 통해 승리하거나 성공한 사람만이 기억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패배감을 느끼게 되므로 경쟁보다는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통한 동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3.⑤ 24.③ 25.② 26.② 27.③ 28.④ 29.③ 30.⑤ 31.① 32.④ 33.④ 34.④ 35.① 36.③ 37.경쟁은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 관계를 해친다. 경쟁은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하여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38.① 39.③ 40.④ 41.⑤ 42.① 43.(1)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2) 연대와 협동을 통한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다.

3-(2) 도전할 것이 없는 놀이터

1.④ 2.② 3.① 4.② 5. ㉠ 기능적 ㉡ 편의 ㉢ 도전 ㉣

진취적 6.③ 7.② 8.⑤ 9.⑤ 10.④ 11.⑤ 12.④ 13.③ 14.② 15.㉠ 도전 ㉡ 모험 16.① 17.⑤ 18.② 19.① 20.④ 21.② 22.① 23.② 24.① 25.⑤ 26.⑤ 27.② 28.② 29.⑤

3-(3) 미안합니다

1.① 2.④ 3.반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쩔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4.② 5.④ 6.⑤ 7.④ 8.③ 9.영수에게 사과하려는 생각 10.③ 11.①

4-(1) 나는 누구인가

1.② 2.④ 3.② 4.① 5.③ 6.③ 7.'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주제인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 8.② 9.① 0.① 11.④ 2.③ 13.④ 14.③ 15.⑤ 16.㉠내성으로 본질로서의 '나'찾기 ㉡ 본질적인 '나'를 찾을 수 없다.

4-(2) 내가 찍고 싶은 사진

1.① 2.② 3.⑤ 4.③ 5.④

4-(3) 친구들이 전하는 이야기

1.(1) ㉠풍자 (2) ㉡3인칭 관찰자 (3) 규중 부인이 자신들의 옷을 만드는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2.자신의 공을 들어 아첨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를 편애하는 당시의 사회 지배층을 풍자한다.

5-(1)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잉여

1.② 2.④ 3.③

5-(2)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1.③ 2.⑤ 3.④ 4.③

- 끝 -